

##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

오 진 명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청년중시로선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청년동맹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청년들을 백두의 혈통을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맹장들로 키워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자라나는 새 세대 청년들에 의하여 계승되고 전진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문제를 옹계 해결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며 혁명의 령도자가 청년중시의 정책을 실시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전도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혁명령도의 전기간 청년중시를 국사중의 국사로, 혁명의 전략적로선으로 내세우고 현명한 령도로 력사상 처음으로 청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였으며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을 일떠세우신것은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공적이다.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사에서 청년중시의 로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처음으로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청년들을 묶어세우는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과 준엄한 조국해방전쟁,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을 믿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혁명승리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시고 시종일관 청년중시의 정책을 실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청년중시의 로선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이어지고 빛나게 실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정책은 청년들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며 청년운동을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을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중요한 전략으로 내세우는 정치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청년들을 사랑하라!》의 구호에는 청년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그대로 함축되어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청년문제를 홀시하고 청년들을 혁명적으로 키우지 못한 결과 청년들이 사회의 우환거리로 되고있는 지나온 력사와 오늘의 현실은 혁명과 건설에서 청년문제를 중시하고 청년중시의 정책을 빛나게 실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가 얼마나 현명하고 선견지명한것인가를 보여주고있다.

청년중시로선으로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청년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 내세워주신것이다.

청년중시의 정치는 청년들에 대한 사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청년들을 사랑하고 내세워주지 않고서는 그들의 역할도 높일수 없으며 결국 청년중시의 정치를 실현할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당과 혁명대오를 이끄시는 첫 시기부터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청년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시였으며 청년들을 위하여 아낌없는 사랑과 은정을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들에 대한 사랑은 청년들을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세워주시는데서 표현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청년들을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로 내세워주시였다.

주체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 조선로동당의 청년전위,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청년들에게 안겨주신 가장 값높은 칭호이다. 여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당과 수령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의 령도따라 그 어떤 난관과 시련도 뚫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는 청년혁명가, 정수분자들이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있다.

청년동맹을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라고 불러주신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정치의 뚜렷한 표시이다.

세계적범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이 날을 따라 심각해지던 1990년대 중반기 엄혹한 정세에 대처하여 청년들에게 안겨주신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동대라는 칭호속에는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직 자기 령도자를 견결히 옹위하고 령도자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물불을 가림없이 뛰어드는 당의 참된 전사, 충정의 대부대이라는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다.

세계사회주의청년운동력사에는 청년들의 지위를 이렇게 저렇게 규정한 정치가들이 많았지만 위대한 장군님처럼 청년들의 지위를 그렇듯 시대의 가장 높은 경지에 올려세워준 정치가는 없었다.

청년들을 단순히 선진사상전파의 교량자, 안내자로 규정한 선행한 리론들과는 달리 청년들의 지위가 조국과 민족의 운명문제, 당과 혁명위업의 승패문제와 결부되어 규정된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운동사상에서만 찾아볼수 있는 독창적인 리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85(1996)년 1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하도록 하시였다. 이 력사적인 조치에 의하여 조선청년들은 온 세상에 자기의 영예와 긍지를 가장 높이 떨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청년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며 내세워주시는 청년운동의 탁월한 령도자이시며 우리 청년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청년중시로선으로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들을 창조와 건설투쟁에서 혁명적열정과 무궁무진한 힘을 다 바쳐 기적을 이룩해나가는 돌격대로 내세워주신것이다.

청년들을 믿고 그들의 힘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제건설목표를 내세우고 기술혁신운동을 발기하시여도 그리고 나라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을 설계하시여도 언제나 혁명성과 전투력이 높고 조직력과 단결

력이 강한 우리 청년들의 충정을 믿으시고 그들의 거대한 힘으로 온 사회에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나가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80년대속도창조운동을 발기하실 때에는 청년들이 총돌격전의 기수가 되고 영웅이 될것을 호소하시였으며 어렵고 방대한 북부철길건설과 평양-남포고속도로건설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것을 통채로 청년들에게 맡겨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 있었기에 우리 청년들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 전진하면서 로동당시대를 빛내이는 청년영웅으로, 당의 요구라면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비상한 혁명적열정과 무궁무진한 창조력,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완강한 투지를 지닌 혁명전위로 자랑떨치었다.

우리의 청년들은 당에서 농사문제를 두고 걱정하면 사회주의농촌으로 달려갔고 석탄문제를 두고 마음쓰면 탄광으로 달려가 청춘의 힘과 열정을 깡그리 바쳤다.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발휘한 혁명적군인정신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심하시고 명령하신 문제, 당이 의도하고 바라는 문제라면 추호의 동요도 에누리도 있을수 없으며 오직 당에서 정해진 날자와 시간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내고야마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에 기초한것이였다.

당의 결정과 지시관철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혁명정신으로 조국땅위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서해갑문, 안변청년발전소, 청년영웅도로, 수도의 웅장화려한 거리들을 비롯한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은 일떠세우며 전진하여온 우리 청년들의 투쟁로정은 령도자의 사랑과 믿음을 받는 청년들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힘과 무비의 영웅적위훈을 발휘하게 되는가를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청년들의 힘을 믿고 그들의 혁명적열정과 무궁무진한 창조력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는 새 세기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거연히 일떠선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도 뜨겁게 어리어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날을 따라 가증되는것으로 하여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으며 이러한 조건에서 발전소건설은 더욱더 어렵고 힘든 문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렵고 힘든 발전소건설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맡겨주시고 전선시찰의 길에서 청년들이 용명을 떨치는 발전소건설장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영웅적투쟁을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보다 큰 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뜨겁게 고무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취해주시는 혁명적조치와 은정깊은 사랑에 고무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진 추위와 난관을 이겨내고 부족되는 자재와 물자를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면서 결사전을 벌려 언제를 한치한치 쌓아나갔다.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으며 그 나라와 민족마다에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다. 하지만 조선의 청년들처럼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청년들에 대한 숭고한 사랑과 믿음을 지니시고 그들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신 청년운동의 탁월한 령도자를 모시고 혁명을 한 청년들은 일찌기 없었다.

청년중시로선으로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청년들을 혁명적교양과 단련으로 주체혁명위업을 떠메고나가는 믿음직한 계승자로 내세워주신것이다.

청년중시의 정치는 청년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의 힘을 최대한 발양시키는것과 함께 청년들을 훌륭한 혁명가로 키우는 사업을 통하여 실현된다.

다른 사업에서는 우리 세대가 다하지 못한것이 있어도 후대들이 보충할수 있지만 후대를 잘 키우는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누가 보충할수도 없고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져온다는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신조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아버지수령님께서서 이룩하신 청년운동의 전통과 업적을 계승발전시켜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교양은 정의롭고 아름다운것에 대한 동경심이 강한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는 우월한 교양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청년동맹조직들이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의 갈피마다에 수놓아진 수많은 긍정적모범과 우리 인민과 청년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아름다운 소행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상교양사업을 우리 청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지 않게 낡은 격식과 틀에 맞추어하는 현상을 철저히 극복하고 전진하는 시대의 숨결에 맞추어 청년들의 심금을 울리며 그들을 옳바로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참신하게 벌리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높고 혁명실천속에서 단련되었으며 패기와 정열이 있고 풍부한 지식과 실무적자질을 갖춘 전망성있는 청년들로 청년동맹일군대렬을 꾸리고 그들의 수준을 계속 높여나가는 한편 동맹안에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체제와 규률을 세우며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조직생활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혁명적단련을 청년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시고 청년돌격대운동과 과학기술행군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청년들을 사회주의건설의 돌격대로 키우는 운동으로서만이 아니라 자기 수령, 자기 당의 위대성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혁명성을 튼튼히 다진 참다운 혁명가로 단련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게 하시였다.

이렇듯 참신한 교양과 단련방법이 있어 우리 청년들은 주체위업을 떠메고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로 억세게 자라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청년중시로선은 오늘 또 한분의 조선청년운동의 령도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

모든 청년학생들은 청년중시로선으로 청년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의 칼바람에 뜻을 달고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내달림으로써 백두산청년강국의 위용을 만방에 높이 떨쳐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청년중시, 청년운동